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들 - 지문 분석**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3]

1. 갈래 특징 : 수필
2. 작가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반드시 출제하므로 총 3개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3. 내용일치 유형으로 출제! : 지문 내용을 반드시 3회 이상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지문 분석]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대화 내용을 통해 글을 시작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근씨를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 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씨와 당근씨는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충(대강 어림잡아 헤아림)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을 종종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밭에 뿌린 씨를 새들이 먹었던 작년 기억 때문) 작년에도 너무 얇게 씨를 뿌려 낭패(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작가의 경험이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작가의 경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을 시험에 출제하므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씨 뿌린 지 두 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숫고 간 뒤였다.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세 알 이상씩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한 알은 사람을 위해.(농부들이 씨를 세 알씩 심는 이유 : 자연과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 작가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경험(당근이 자랄 수 있도록 숙아 준 일)  
깨달음(당근을 적절히 숙아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깨달음)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돌아났다. 처음엔 그 어렵게 틈워 낸 이쁜 싹들을 숙아 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당근 싹이 너무 촘촘하게 돌아났기 때문 :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 수 없음)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글쓴이의 깨달음)(앞에서 말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반드시 기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환멸(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짐.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도 어떤 아우성(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숙아 주어서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식물들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줌)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해당 부분에서 글쓴이가 당근을 숙아 낸 이유

는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뿌리가 너무 뻗뻗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여 당근이 제대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 이 글에서 사용된 유추

당근 : 당근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없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음.

사람 :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거리가 깨지면 폭력과 환멸이 생겨남.

→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미운 풀 옆에는 고운 풀도 있는 법이라 미운 풀을 죽이려고 밟다 보면 그 곁에 있던 고운 풀도 죽게 됨)는 속담이 있다. 김(논밭에 난 잡풀)을 땄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꼭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잡초와 채소는 인간의 기준에 의한 구분일 뿐이라는 것으로 농사는 모두가 공존하기보다는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농사의 반생명성이라는 내용으로 선지에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출제 포인트! 밟은 잡초를 뽑고 농작물만 키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제된 적이 정말 많고 오답률도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밟을 일구면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가운데가 솟아서 볼록하게 언덕이 진 곳)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개망초,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본래 땅에 살고 있던 다양한 풀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 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 주어야 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밟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변명 같지만, 다른 밟보다 우리 밟에 풀이 무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풀을 죽이지 않으려는 생명 존중 의식 때문) 만일 그렇다 해도 게으름이 농부의 악덕은 아닌 것이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밟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밟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농작물은 물을 주기 위해 들판을 오가는 농부의 밟소리에 담긴 사랑과 정성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밟을 흠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 작가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경험(밭에 풀을 뽑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일)

깨달음(사람이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림,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 질서임을 깨달음)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 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니 물통의 반 이상 흘러서 몸부림치듯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글쓴이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평화가 느껴집니다.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힘이 들더라도 채소에게 생명의 기운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작가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경험(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깨달음(통에 담긴 물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깨달음)

이 짙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농사를 지으며 겪은 일을 통해 생명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음)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의 행복한 합일이라고도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채소를 키우며 그들에게 사랑을 흠뻑 쏟음)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물 - 내신 암기 문제 암기용**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현대 <b>수필</b>
성격	<b>사색적</b> , <b>체험적</b> , <b>성찰적</b>
제재	<b>밥을 가꾸는 일</b>
주제	<b>밥을 가꾸면서</b> 얻은 <b>깨달음</b>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새</b>를 짓는 자신의 <b>체험</b>에서 <b>깨달음</b>을 이끌어 내고 있음.</li> <li>• <b>밥을 일구면서</b> 느낀 점을 <b>중심</b>으로 짚막한 이야기들을 <b>병렬적</b>으로 <b>나열함</b>.</li> </ul>

2.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①	<b>땅근</b> 이 자랄 수 있도록 <b>숨어</b> 준 일.
깨달음 ①	<b>땅근</b> 을 적절히 <b>숨어</b>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b>거리</b> 의 <b>중요성</b> '을 깨달음.

경험 ②	<b>밭</b> 에 <b>풀</b> 을 뽑지 않아 <b>잡초</b> 가 무성해진 일.
깨달음 ②	사람이 <b>잡초</b> 와 <b>채소</b> 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임. <b>선택</b> 보다는 <b>공존</b> 의 <b>질서</b> 가 필요함을 깨달음.

경험 ③	몸이 불편한 <b>할아버지</b> 가 <b>채소</b> 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깨달음 ③	<b>통</b> 에 담긴 <b>물</b> 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몸이 불편한 <b>할아버지</b> 의 모습에서 <b>생명</b> 을 사랑하는 <b>소중</b> 한 마음을 깨달음.

3. 이 작품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밥**을 일구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함.

+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음.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씀.



수필의 특성

- **작가**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함.
-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남.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물 - 내신암기 문제 TEST 1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수□
성격	사□□, 체□□, 성□□
제재	□을 가꾸는 일
주제	□을 가꾸□□ 얻은 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를 짓는 자신의 체□에서 깨□□을 이끌어 내고 있음.</li> <li>• □을 일구면서 느낀 점을 중□으로 짤막한 이야기들을 병□□으로 나□□.</li> </ul>

2.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①	당□이 자랄 수 있도록 숙□ 준 일.
깨달음 ①	당□을 적절히 숙□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거□의 중□□'을 깨달음.

경험 ②	□에 □을 뽑지 않아 잡□가 무성해진 일.
깨달음 ②	사람이 잡□와 채□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임. 선□보다는 공□의 질□가 필요함을 깨□□.

경험 ③	몸이 불편한 할아□□가 채□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깨달음 ③	□에 담긴 □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몸이 불편한 할아□□의 모습에서 생□을 사랑하는 소□한 마음을 깨달음.

3. 이 작품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을 일구는 과□에서 가치 있는 경□을 함.

+

자신의 경□을 떠올리고, 경험에서 깨□□을 얻음.

+

정□를 표현하는 글을 씀.



수필의 특성

- 작□의 경□에서 얻은 깨□□을 글로 표현함.
- 형□과 표□이 자유롭고, 작가의 개□과 가□□이 잘 드러남.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물 - 내신암기 문제 TEST 2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현대 □□
성격	□□□, □□□, □□□
제재	□을 가꾸는 일
주제	□을 □□□□ 얻은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를 짓는 자신의 □□에서 □□□□을 이끌어 내고 있음.</li> <li>□을 일구면서 느낀 점을 □□으로 짤막한 이야기들을 □□□□으로 □□□.</li> </ul>

2.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①	□□이 자랄 수 있도록 □□ 준 일.
깨달음 ①	□□을 적절히 □□ 내지 않으면 전체가 자랄 수 없음. 이를 통해 '적절한 □□의 □□□'을 깨달음.

경험 ②	□에 □을 뽑지 않아 □□가 무성해진 일.
깨달음 ②	사람이 □□와 □□를 구분하여 죽이고 살리는 것임. □□보다는 □□의 □□가 필요함을 □□□.

경험 ③	몸이 불편한 □□□□가 □□에 물을 주는 것을 본 일.
깨달음 ③	□에 담긴 □을 반 이상 쏟으면서도 물을 주러 가는 몸이 불편한 □□□□의 모습에서 □□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깨달음.

3. 이 작품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을 일구는 □□에서 가치 있는 □□을 함.

+

자신의 □□을 떠올리고, 경험에서 □□□□을 얻음.

+

□□를 표현하는 글을 씀.



수필의 특성

- 의 □□에서 얻은 □□□□을 글로 표현함.
- 과 □□이 자유롭고, 작가의 □□과 □□□□이 잘 드러남.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물 - 내신암기 문제 TEST 3단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성격	_____, _____, _____
제재	_____
주제	__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_</li> <li>• _____</li> </ul>

2.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경험 ①	_____
깨달음 ①	_____

경험 ②	_____
깨달음 ②	_____

경험 ③	_____
깨달음 ③	_____

3. 이 작품을 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수필의 갈래적 특성

\_\_\_\_\_

+

\_\_\_\_\_

+

\_\_\_\_\_



수필의 특성

- \_\_\_\_\_
- \_\_\_\_\_

고1국어

비상박안

3(4) 반 통의 물 - 내신암기 문제 OX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글쓴이는 잡초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 O / X )

8. 글쓴이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힘든 농사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 O / X )

2. 글쓴이는 숲보다 밭이 생명에 덜 가깝다고 생각한다.

( O / X )

9. 글쓴이는 할아버지가 나르는 반 통의 물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 O / X )

3. 글쓴이는 농부의 게으름은 악덕이라고 생각한다.

( O / X )

10. 글쓴이는 당근 씨를 뿌리는 경험을 통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 O / X )

4. 수필에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워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O / X )

5. 수필은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 O / X )

6. 글쓴이는 씨를 먹는 새를 생각하여 당근씨를 넉넉하게 뿌렸다.

( O / X )

7. 글쓴이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잡초는 미운 풀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뽑는다.

( O / X )



내신암기 문제

정답은 암기용 참고

내신암기 문제 - OX 문제

1. <답> X

2. <답> O

3. <답> X

글쓴이는 농부의 게으름이 악덕은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4. <답> X

수필에서는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5. <답> O

6. <답> O

7. <답> X

8. <답> X

9. <답> O

10. <답> O